

성인 연령의 인하와 성년의 날

일본에서는 성인 연령, 즉 법률적으로 어른이 되는 연령이 2022년 4월에 20세에서 18세로 인하되었습니다. 주된 이유로는, 2016년에 모든 선거에서 선거권이 18세 이상으로 확대된 것에 있습니다. 고등학생이라도 선거권이 있는 학생과 없는 학생이 같은 학급에 있게 됩니다. 단, 신체적 성장을 위해 음주와 흡연은 그대로 20세 이상으로 두었습니다.

성년의 날은, '어른이 되었음을 자각해 스스로 살아 나가려는 청년을 축하·격려한다'를 취지로 하여, 1948년에 제정된 공휴일입니다. 나라 시대부터 에도 시대에 걸쳐서, 12살부터 16살이 된 남아가 어른이 된 것을 축하하는 의식으로 '겐푸쿠(元服:남자가 성인의 표시로서 머리 모양과 옷을 바꾸고 머리에 관을 쓰는 의식)'가 1월 15일에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성년의 날은 1월 15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 후, 2000년에 연휴를 늘리려는 시도로 인해, 1월의 두 번째 월요일로 변경되었습니다.

1월 중순이 되면, 아름다운 기모노와 정장 차림의 젊은이들을 길거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시장과 내빈이 축사를 하고 젊은이의 대표가 연설을 하는 식전의 모습이 TV 등에 보도됩니다. 이 식전을 '성인식' 혹은 '성인을 축하하는 모임' 등으로 부르며, 지자체가 개최합니다. 성년의 날에 개최되는 경우가 많지만, 고향을 떠나 취직하거나 학교에 다니거나 하는 성인이 많은 지역에는, 골든 위크와 여름방학, 오봉(お盆)의 귀성에 맞춰 8월에 식전을 행하는 곳도 있습니다. 새로운 성인에게 있어서는 어른이 되는 자각을 가정과 동시에 오랜만에 동급생을 만나 옛정을 새로이하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그렇다면 성인 연령이 낮춰진 2023년의 식전에는 누가 참석할 것인지? 가 됩니다. 미야자키시는 18세를 대상으로 하면 대상자의 대부분이 진학과 취직 등, 진로의 선택에 관련된 중요한 시기에 있기 때문에, 2023년 이후도 20세를 대상으로 식전을 개최해, 그 명칭을 '스무 살의 모임'으로 변경하는 듯합니다. 또한 미야코노조시와 노베오카시도 똑같이 '식은 지금까지와 같이 20세를 대상으로 개최합니다'라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이 식전이 가족뿐만 아니라 지역 전체에서 새로운 성인들을 격려하고, 어른으로서의 새 출발을 축하하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요?

이 코너로의 질문, 의견, 요청 사항이 있으시다면 미야자키현 국제교류협회로 연락해주시길 바랍니다. TEL : 0985-32-8457 FAX : 0985-32-8512 Email : miyainfo@mif.or.jp

일상생활에 관하여 질문 및 고민이 있으시다면 미야자키현 외국인 서포트센터로 연락해주시길 바랍니다. TEL : 0985-41-5901 FAX : 0985-41-5902 Email : support@mif.or.jp

※일본어 번역은 후일, 미야자키현 국제교류협회의 홈페이지에 게재됩니다.